

■ 특집 ■

영 제국정책 논쟁과 대서양 노예무역의 폐지:
C. L. 브라운의 『도덕자본』 (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윤영휘

I. 서론

근대 대서양 노예무역은 ‘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라는 서양 근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와 관련 깊은 역사적 사건이다. 근대 이후 대서양 세계에 대규모 디아스포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의해 행해진 노예무역이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이 16-19세기에 얼마만큼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대서양 반대편 지역으로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부분하나, 최근 데이비드 엘티스(David Eltis)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노예무역을 통한 부자유 노동력의 이주의 흐름을 큰 틀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면 1514년부터 186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약 1,060만 명 이상의 흑인 노예들이 대서양 반대편을 향해 팔려갔다. 흑인 노예들의 승선지는 지금의 세네갈, 감비아, 베냉, 기니, 골든 코스트 등 서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매매는 18세기 전반(약 230만 명), 18세기 후반(약 350만 명), 19세기 초반(약 325만 명)의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다. 엘티스는 또한 아메리카에 실제로 도달한 노예들의 수에 대한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떠난 흑인들 중 약 870만 명이 아메리카 및 유럽과 아프리카에 하선하였으며, 그들의 하선지는 북아메리카(300만), 스페인령 아메리카(약 526만), 서인도제도(약 435만), 브라질(약 320만)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엘티스 외에 허버트 클레인(Herbert S. Klein), 스텐리 엥거먼(Stanley L. Engerman), 시모어 드

레서(Seymour Drescher), 로저 안스티(Roger Anstey) 등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의 기간 동안 약 1천만 명에 가까운 흑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떠나 서인도제도, 브라질, 북아메리카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약 18% 이상의 노예가 승선 과정, 항해 중간, 하역 과정에서 죽었다고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

이 부자유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데이터는 우선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역사적 중요성과 특이성을 부각시킨다. 인류 역사에 노예 및 농노와 같은 부자유 노동인구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1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상품화 해 판매한 사건은 분명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매매하는 대양 무역은 1천만 명 인구의 대륙 간 이동을 초래함으로써 대서양 세계의 인종 구성, 경제 구조, 정치 외교 관계 등에 근원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주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서양 노예무역은 다양한 아프리카 인종이 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대규모 디아스포라 형성 사건이었다. 이러한 대서양 노예무역의 중요성은 반대로 그것을 폐지하려는 운동에도 독자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 자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자연스런 악감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서양 세계에 확산되고 정치사상으로 발전하여 부자유 노동력의 대륙 간 이동을 중단시키는 정치적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시작 및 발전 과정만큼이나 인위적인 현상이었으며, 그것만큼이나 전례 없는 특별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 Herbert S. Klein, Stanley L. Engerman, Robin Haines, Ralph Shlomowitz, "Transoceanic Mortality: The Slave Trade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58-1 (2001), 93-118; Seymour Drescher, *Econocide: British Slavery in the Era of Abolitio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pp. 25-32; Roger Anstey, *The Atlantic Slave Trade and British Abolition, 1760-1810* (London: Macmillan, 1975), pp. 3-37.

C. L. 브라운의 『도덕자본』(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표1> 아프리카 흑인 노예 승선 통계²⁾

	Africa										Other Africa	Asia e Africa	Totals
	Senegambia	Serra Leone	Windward Coast	Windward Coast	Gold Coast	Bight of Benin	Bight of Biafra and Gulf of Guinea islands	West Central Africa and St. Helena	Southeast Africa and Indian Ocean islands				
1501-1550	28,997	0	0	0	0	0	2,513	983	0	1,852	0	33,565	
1551-1600	130,829	3,598	0	0	0	0	9,270	33,551	0	102,847	0	278,287	
1601-1650	57,740	90	0	0	1,081	9,936	25,270	258,304	0	67,823	0	418,432	
1651-1700	46,987	2,790	496	496	57,470	175,472	73,130	131,366	11,982	166,368	0	668,001	
1701-1750	80,144	10,810	20,275	20,275	259,787	571,232	137,223	499,236	8,685	628,725	0	2,216,997	
1751-1800	185,107	143,474	160,176	160,176	368,588	491,178	572,542	1,085,917	50,129	464,817	0	3,521,508	
1801-1850	74,435	83,948	21,490	21,490	58,042	268,405	290,213	1,385,112	321,179	754,766	400	3,258,012	
1851-1900	0	1,648	0	0	0	14,144	875	78,625	12,126	130,810	0	228,829	
Totals	603,447	246,334	202,437	202,437	744,528	1,536,367	1,119,836	3,465,094	404,081	2,318,137	400	10,617,751	

<표2> 아프리카 흑인 노예 하선 통계세 Ibid. 제1행의 지역명은 하선지 임.³⁾

	Europe	Mainland North America	Caribbean	Spanish Mainland Americas	Brazil	Africa	Other	Totals		
1501-1550	464		0	5,700		11,654	0	1,786	19,604	
1551-1600	188		0	24,946		160,035	1,155	319	216,484	
1601-1650	287		0	23,763		238,534	34,820	155	311,479	
1651-1700	2,275		10,081	362,417		31,854	78,790	2,346	9,994	497,757
1701-1750	3,476		115,149	978,190		45,552	586,735	274	43,312	1,772,688
1751-1800	1,039		124,128	1,992,525		13,169	739,867	2,548	31,722	2,904,998
1801-1850	0		56,803	807,296		26,134	1,739,995	123,420	19,180	2,772,828
1851-1900	0		1,844	159,883		0	7,900	16,277	0	185,904
Totals	7,729		308,005	4,354,720		526,932	3,189,262	145,339	149,755	8,681,742

두 번째로 대서양 노예무역의 확산과 폐지 과정은 ‘식민주의 및 제국정책’이라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의 경우 18세기 초·중반에는 서인도제도 식민지 관련 제국정책의 수립에 있어 노예무역 및 노예 농장제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이 과정에는 유럽의 설탕 수요 증가로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이 지역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 셀윈 캐링턴(Selwyn Carrington), 월터 민친턴(Walter Minchinton) 등이 주장했던 ‘쇠퇴 이론’(Decline Theory)의 영향력이 현재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2) <http://www.slavevoyages.org/voyage/search> (검색일: 2016년 8월 8일). 제1행의 지역명은 승선지 임.

3) *Ibid.* 제1행의 지역명은 하선지 임.

는 어렵겠지만,⁴⁾ 그럼에도 그동안 대다수의 학자들은 19세기 초까지 대서양 노예무역의 수익률과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서인도제도의 경제적 가치가 여전히 높았다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해 왔다.⁵⁾ 그리고 이 지역을 두고 프랑스와 경쟁을 벌였던 영국으로서 서인도제도 식민지 보호와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간산업에 필요한 부자유 노동력의 공급은 식민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18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북아메리카의 담배와 면화가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와 같은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산업들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도 노예 농장제와 노예무역은 계속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포겔(Robert Fogel)은 이 새로운 작물들의 경제적 가치 증가로 인해 18세기 말 북아메리카 식민지, 특히 남부 지역에서 소규모 농장이 대규모 농장으로 재편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이 노예제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⁶⁾ 이제 노예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생산 및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이 지역 식민정책 수립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고려사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영국의 해외 식민정책에 영향을 끼쳤고 동시에 노예제도 또한 식민정책에 영향 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부자유 노동력, 디아스포라, 식민정책이라는 근대사의

4) 노예무역 폐지 당시 이미 서인도제도의 사탕수수 산업이 쇠퇴하여 폐지가 크게 손해가 되지 않았다는 ‘쇠퇴이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elwyn Carrington, *The Sugar Industry and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1775-1810* (Gainesville, FL: University of Florida Press, 2002); Walter Minchinton, ‘Williams and Drescher,’ *Slavery and Abolition*, 4 (1983), pp. 81-105.

5) J. R. Ward, “The Profitability of Sugar Planting in the British West Indies, 1650-1834,” *Economic History Review*, 31 (1978), pp. 197-213; Patrick O’Brien,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the Periphery,” *Economic History Review*, 35 (1982), pp. 1-18; Seymour Drescher, “The Decline Thesis of British Slavery since Economicide,” *Slavery and Abolition*, 7-1 (1986), pp. 3-24; Hugh Thomas, *The Slave Trade. The History of the Atlantic Slave Trade, 1440-1870* (New York: Simon & Schuster, 1998), pp. 494-495.

6) Robert Fogel, *Without Consent or Contract: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Slavery* (New York: W. W. Norton, 1989), p. 23.

중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C. L. 브라운(Christopher Leslie Brown)의 『도덕자본: 영국 노예무역 폐지주의의 기원들』의 논지와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⁷⁾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이 책은 18세기에 있었던 대규모 부자유 노동력의 공급과 중단이라는 사건을 식민주의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도덕자본』은 위의 세 키워드들 중 디아스포라 자체를 다루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노예무역이 대서양 세계에 흑인 노예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하여 각지에 디아스포라 집단을 형성한 근본적 원인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확산과 폐지를 영국의 제국정책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시도 안에 이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다수의 소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자유 노동이 확대된 과정 뿐 아니라 그 흐름이 중단되고 폐지되는 과정까지 설명하여 논의의 지평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사실 그 동안 노예무역 관련 주제에서 제국정책이 다뤄질 때는 후자가 전자를 어떻게 확대하고 고양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부자유 노동인구의 대륙 간 확산과정은 분명 식민주의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이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라운은 제국정책과 관련된 논쟁들이 노예무역을 활성화하는 과정 뿐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점에서 그 동안의 논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인류역사에서 항상 있어왔고 근대에 이르러 신대륙에 대규모로 확산되어 되돌리기 힘든 흐름으로 여겨졌던 부자유 노동력의 강제 이주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새롭게 등장하고 정치적 폐지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반노예제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도주의 혹은 경제적 동기 중 하나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그 새로운 접근법은

7) Christopher Leslie Brown, *Moral Capital: Foundation of British Abolitionism* (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2006).

후술되겠지만 바로 ‘도덕자본’(Moral Capital)을 통한 설명이다. 이 책은 당시 사람들이 개인적 신념 및 가치에 충실하여 반노예제 운동에 헌신한 결과 갖게 된 도덕적 위신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접근법을 극복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반노예제적 주장을 함으로 보유하게 된 도덕자본을 영제국의 정책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서, 당시 노예무역과 제국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이념들을 연결하던 끈과 고리가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II. 내용 및 주제

1. 브라운의 중심 테제:

C. L. 브라운의 책, 『도덕자본』은 출판되면서부터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저자인 브라운 교수는 이 책으로 Frederick Douglass Prize from the Gilder Lehrman Center at Yale University(2007), Morris D. Forkosch Prize from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2006), James A. Rawley Prize from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2006) 등의 저명한 상들을 수상했다. 브라운이 책 전반을 통해 추적하는 것은 바로 반노예제 사상의 기원과 그 발전과정이다. 그는 책의 제1장에서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자유 노동력의 이주가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초기 퀘이커, 모라비안,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1770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반노예제 사상의 원형을 찾아보려 한다. 제2장에서는 7년 전쟁과 미국 독립혁명 직전의 국제 정치적 위기 국면 속에서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정치·도덕적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제3장에서는 영국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선구자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를 통해 노예제 이슈가 제국정책과 관련된 논의와 연결되는 과정이 논해진다. 이 책의 제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예무역에 대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그것의 폐지가 유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제6장에서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 이후 영국에서 국교회 출신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참여함으로 얻은 도덕자본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의 전파와 제국의 위기 상황 타

개라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관찰하며, 제7장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퀘이커교도들이 반노예제 사상을 집단적 정체성의 중요 요소로 정립하는 과정과, 이들에게 영향 받아 토머스 클락슨(Thomas Clarkson), 제임스 램지(James Ramsay)와 같은 국교도 출신 복음주의 정치인들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에서 ‘자유, 정의, 인간애’ 같은 덕목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브라운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18세기 말에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상이 등장하고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운이 제1장에서 주장했듯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주제와 내재적 연관성이 있다. 즉, 1)어떻게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에 호전적인 생각과 가치가 발전하게 되었는가, 2)이 사상이 어떻게 제국과 식민지 정책을 개혁하려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되었는가? 3)노예무역 폐지와 노예해방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었는가?⁸⁾ 브라운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세 번째 질문에 맞춰져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책을 통해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이 반노예제 사상으로 변화하여 실질적인 제국 및 식민지 정책을 개혁하는 행동으로 옮겨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브라운은 그 핵심이 미국 독립혁명기의 역사적 사건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독립혁명은 영국인들과 아메리카 식민지인들 사이에 영 제국 체제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미 노예무역 및 노예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시간 동안 반노예제 대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덕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식민지인들 뿐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도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대편의 부도덕함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의회들이 영 제국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대서양 노예무역을 비판하자, 제국정책의 지지자들은 북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노예 농장제를 비판하여 그들의 위선적 면모를 공격할 수 있었다.⁹⁾ 이런 식으로, 노예무역 및 노예제에 대한 반감은 미국 독립혁명이 초래한 갈등과 긴장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반

8) Brown, *Moral Capital*, p. 17.

9) *Ibid.*, pp. 371-372.

노예제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다. 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시기에 노예제에 대한 반감을 좀 더 활발히 표현했고 그것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브라운 테제는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의 동기 문제에 대한 오랜 논쟁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처럼 이들이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참여한 동기를 박애주의나 물질적 이해관계의 측면 중 하나로 접근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 독립혁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당시 눈에 쉽게 띄는 ‘악’인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위신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반노예제 주장이 미국 독립혁명기와 그 후의 시기에 더 유용해”진 것이다.¹⁰⁾ 여기에서, 브라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학자 존 케인(John Kane)의 ‘도덕자본’(Moral Capital) 개념을 차용해 노예무역 폐지주의자들의 동기를 설명한다. 케인은 도덕자본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의 도덕적 위신”으로 정의하였는데,¹¹⁾ 이는 도덕적 구별됨이 세속 사회에서 특정 행동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목표는 도덕적 대의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덕적 명분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게 도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 반노예제 운동을 이끌었던 퀘이커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동체에서 노예소유주들을 추방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을 고양할 수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반노예제 운동가였던 토마스 클락슨은 이 이타적인 사명에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도덕적 명성을 얻고 동시에 “아프리카인들의 자유를 위한 구원자”라는 세속적 명성 또한 획득할 수 있었다.¹²⁾ 브라운 테제는 운동가들이 반노예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덕적 신념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임으로서 그들이 도덕주의자이었는지, 위선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오랜

10) *Ibid.*, p. 458.

11) John Kane, *The Politics of Moral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7.

12) Brown, *Moral Capital*, pp. 439-442.

논쟁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2. 브라운 테제의 시사점¹³⁾

브라운의 중심 테제는 노예무역 폐지운동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미국 독립혁명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위기 상황의 중요성,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에 반대하는 것이 도덕자본을 제공하는 상황의 형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제국정책을 둘러싼 당시 영국과 식민지인들의 치열한 논쟁과 연결되는 고리가 발견될 수 있다. 필자는 브라운이 시사한 이 연결고리의 실재를 제국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바 있으며, 이는 브라운 테제가 향후 노예제와 제국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방향에 끼친 잠재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1770년대부터 영국 의회 안팎에서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주도한 영국의 복음주의운동가들의 수사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시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하는 것이 개인 및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과정 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관철 하는데 유용한 담론적 무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국정책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반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기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대서양 양안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서술들은 반노예제 담론이 제국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8세기 중반부터 노예들을 자신의 종교 공동체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1774년에는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팸플릿인 『노예제에 대한 고찰』(Thoughts upon Slavery)을 출판하기도 했던 웨슬리는 개인적으로는

13) 이 소 챕터의 주된 주장 및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 하였다. 「복음주의 노예무역 폐지론자들의 도덕자본(Moral Capital)과 종말론적 위기 의식」, 『영국연구』 28호 (2012), 139-143쪽.

제국정책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이기도 했다. 웨슬리에게도 기독교 신자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과 같은 사상들이 중요했으며, 그 결과 그의 저술 곳곳에서는 신념의 자유, 인종·국적을 뛰어 넘는 평등과 같은, 식민지 독립파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수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1776년에 출판된 그의 「자유에 대한 고찰」(*Some Observations on Liberty*)에서 웨슬리는 식민지인들이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생득적 자유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권리의 근거를 식민지인들과 달리 전통적인 잉글랜드인의 자유 개념과 영국의 법체계에서 찾았다. 사실 웨슬리가 「자유에 대한 고찰」을 저술한 주목적은 식민지 내의 독립파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무엇보다 그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독립 요구”와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 웨슬리가 보기에 전자에 대한 갈구는 이해할 측면이 있으나, 사실 식민지인들은 영국 법률에 따라 정치적 기본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그는 식민지인들의 독립 주장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요소인 영국의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치부하였다.¹⁵⁾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한 조치로서 웨슬리는 식민지인들의 도덕적 위선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여기에 노예제에 대한 비판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가 그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지만, 웨슬리가 보기에 그들은 자유를 남용하고 있었다.¹⁶⁾ 웨슬리는 실제 노예제에서는 “물건, 자유, 혹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식민지에 있는 수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지 결코 그들의 주인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는 아메리카인들이 “흑인들과 동일한 종류의 노예제를 겪고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모든 종류의 토지와 금전과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¹⁷⁾ 웨슬리가 보기에 더욱 큰 문제는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중노동

14) John Wesley, *Some Observations on Liberty: Occasioned by A Late Tract By John Wesley, M. A.* (London: Printed by R. Hawes, 1776), p. 5

15) *Ibid.*

16) *Ibid.*

17) *Ibid.*, p. 25.

을 강요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노예들의 외침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이었다.¹⁸⁾ 이런 상황 속에서 식민지인들이 자신들을 본국이 강제한 죄사슬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은 자기모순에 가까웠다. 웨슬리가 이 책에서 반노예제 담론을 설교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도덕적 위선과 구별되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이었고, 이 도덕적 위선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었다.

반노예제 담론은 제국 체제의 유지와 식민지 독립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속했던 이들에게도 도덕적 ‘자본’을 제공하였다. 전직 노예선 선의이자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제임스 램지(James Ramsay)는 당시 대다수의 영국인들처럼 독립을 주장하는 식민지인들의 위선적 면모에 분노하였지만, 웨슬리로 대표되는 제국정책의 지지자들과는 다르게 미국 독립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램지는 “북아메리카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다”면서 이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영 제국의 나아갈 바를 재설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제국정책 재수립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램지가 택한 방식도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노예무역을 식민지 독립 이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무역정책의 대표적인 예로서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 독립 이후에도 영국 상인들이 스페인을 포함한 잠재적 경쟁국들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노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노예무역에 대한 지지를 철 지난 옛 정책을 고수하려는 아집으로 치부하였다.²⁰⁾ 램지는 제국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아프리카와의 자유 무역의 확대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도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하는 것이 유용한 수사가 될 수 있었다. 램지가 보기에 노예무역의 폐지는 “아프리카의 문명화”가 “영 제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

18) *Ibid.*

19) James Ramsay, *An Inquiry into the Effects of Putting a Stop to the African Slave Trade, and of Granting Liberty to the Slaves in the British Sugar Colonies; by the Author of the Essay on the Treatment and Conversion of African Slaves in the British Sugar Colonies* (London: Printed and sold by J. Phillips, 1784), pp. 12-13.

20) *Ibid.*, p. 21.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도덕적 각성의 효과를 가진 치료 제였다.²¹⁾ 노예무역을 폐지시킴으로서 영국은 구식 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흑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영국 상품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도덕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국 상업을 발달시킬”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었다.²²⁾ 노예무역에 대한 램지의 공격은 분명 그의 미래지향적인 제국정책에 도덕적 후광을 덧칠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노예무역에 대한 공격은 제국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선구자 그랜빌 샤프는 영국인으로서 드물게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 대해 영국 의회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영국 헌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샤프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생득권에 의해 이 축복된 법률 체계의 한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²³⁾ 그리고 그는 “모든 권리들 중” 입법기관에 자유롭게 대표를 보내는 것을 “권력의 균형 혹은 혼합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 제시하였다.²⁴⁾ 그가 보기에 식민지인들은 이 불가침의 권리를 침범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본토 의회에 대한 저항은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동시대의 복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샤프는 자신의 입장에 도덕적 위신을 더하기 위해 노예무역 비판 담론을 이용하였다. 샤프는 영국이 “매년 5만 명 이상의 불쌍한 아프리카인들을 공급”함으로써 “잔혹함과 억압과 불의로 인한 참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21) *Ibid.*, p. 22.

22) *Ibid.*, p. 19.

23) Granville Sharp, *A Declaration of the People's Natural Right to a Share in the Legislature;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British Constitution of State* (London: Printed for B. White, 1775), pp. i-ii.

24) *Ibid.*, p. 14.

노예무역을 “영국과 식민지의 죄악”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이를 통해 제국정책을 노예무역이 표상하고 있는 부도덕성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는 웨슬리와 달리 아메리카에서 행해지는 노예 농장제를 식민지인들의 위선이 아닌 영 제국정책의 도덕적 흠결을 드러내는 예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의회는 “이 가장 사악한 무역을 지속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 노예제도의 완화를 허락받기 위한 탄원서를 국왕에게 제출하였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²⁶⁾ 샤프는 영국이 대서양 노예무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하고,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노예 농장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제국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충분히 강조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담론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처럼 18세기 말 발생한 영 제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반노예제 수사는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정치적 주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도덕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대서양 세계의 반노예제 운동가들이 노예제 및 노예무역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도덕적 위신을 더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 독립혁명으로 촉발된 제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반노예제 수사에 이전과 다른 정치적 의미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18세기 말의 영 제국정책에 논의와 결합되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관찰할 수 있다.

III. 『도덕자본』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브라운의 18세기 말 영국인들과 식민지인들의 노예제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관찰은 매우 뛰어난 것이지만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해 주

25) Granville Sharp, *The Law of Retribution or a Serious Warning to Great Britain and Her Colonies, Founded on Unquestionable Examples of God's Temporal Vengeance against Tyrants, Slave Holders and Oppressors* (London: B. White and E. and C. Dilly, 1776), pp. 327, 328.

26) *Ibid.*, pp. 312, 314.

는 것은 아니다. 브라운이 시사한 바 있듯이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운동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답해져야 한다. a) 노예무역과 노예제도에 반하는 가치, 개념, 신념이 영어권 대서양 세계에서 어떻게 발달하고 확산되었는가? b)어떻게 이 생각들이 정치적 사상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형되었는가? c)어떻게 반노예제 운동가들이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이라는 성과를 성취할 수 있었는가? 『도덕자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지만 반노예제 이데올로기 발흥의 전제가 되는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브라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반노예제 감정 자체를 잔인한 무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악감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제도에 대한 반감의 확산은 반노예제 감정 자체와 구별되어야 하는 연구주제이다. 이 반감 자체는 자연발생적일 수 있으나 그것은 인위적 노력에 의해 영어권 대서양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다. 기존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들처럼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의 영어권 대서양 세계로의 확산과정과 관련된 질문은 브라운의 연구에서도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또한 국가적 위기의 연속상황 속에서 반노예제 대의가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유용한 것이 되었다는 브라운 데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반노예제 수사가 여러 정치적 목적에 유용해진 상황을 18세기 말 제국의 위기상황이 초래한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영국 의회 내에서 노예무역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국교회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적 위기 국면이 초래한 ‘종말론적 위기감’(Apocalyptic Sense of Crisis)도 노예무역 폐지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했다. 앞서 언급된 클락슨, 샤프, 램지 그리고 윌버포스와 같은 국교회 출신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 뿐 아니라 일부 미국 복음주의자들까지 다수의 종교인들이 당시의 전쟁, 반란, 소요 등을 신의 심판과 동일시하였으며, 국가적 위기가 노예제와 기독교 원칙 사이의 불일치를 계속해서 용인한 결과 나타났

다고 생각했다.²⁷⁾ 영국 의회 내의 반노예제 운동가들의 주장에서 “국가적 죄악이 국가적 형벌을 불러 온다”(national crimes require national punishments)는 반복되는 수사였다.²⁸⁾ 다수의 국교회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러한 국가적 심판을 불러온 대표적인 죄악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악행인 노예무역이었으며, 이 또한 그들이 더 이상의 국가적 ‘징벌’의 발생을 막기 위해 노예무역을 폐지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브라운의 『도덕자본』은 18세기 말의 정치적 사건들이 반노예제 담론이 중요해진 국면을 직접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단순화 하여, 영국에서는 그것이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일부 정치인의 실질적 행동을 촉발한 동력이 된 것을 간과하였다.

그럼에도 『도덕자본』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운은 노예무역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는 마땅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였다. 우선 『도덕자본』은 부자유 노동력의 이주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확산 과정이었던 대서양 노예무역의 폐지에 있어 제국정책이 보인 영향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쉽게 제국정책 및 식민주의와 부자유 노동의 확산을 연결시킨다. 물론 양자의 밀접한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나 제국정책은 노예제 확산의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 것도 아니었고, 제국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간접적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또한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의 과정을 영웅주의와 구조주의 사이의 이분

27) 당시 복음주의자들이 국가적 위기를 노예무역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harp, *The Law of Retribution*, 7, 67-68, 76; Benjamin Rush, *An Address to the Inhabitants of the British Settlements in America, upon Slave-Keeping* (Philadelphia: Printed and sold by John Dunlap, 1773), 30; Morgan John Rhees, *Letters on Liberty and Slavery: In Answer to a Pamphlet, Entitled, 'Negro-Slavery Defended by the Word of God,' by Philanthropos* (New York: R. Wilson, 1798), pp. 23, 53, 58.

28) *The Parliamentary History of England, from the Earliest Period to the Year 1803* (London: T. C. Hansard, 1818), XXXII, pp. 150, 763; *The Parliamentary Debates from the Year 1803 to the Present Time*, 41 vols. (London: T. C. Hansard, 1803-20), VIII, col. 971.

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것을 알려준 것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일 것이다.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노예무역 폐지주의자들을 성인 또는 위선자로 나누는 접근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본래 현대 정치학에서 도덕적 위선이 어떻게 특정 행동을 촉진하고 정당화 하여 일종의 세속권력이 되어 가는지를 분석하였던 ‘도덕자본’ 이론을 차용하여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의 동기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이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반노예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한 가지 배타적인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브라운 테제는 당시 노예무역 폐지운동가들이 도덕자본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노예무역 이슈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차원의 논쟁이 제국정책을 둘러싼 국제외교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되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식민주의, 디아스포라, 부자유 노동이라는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서양 노예무역 및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모두 이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지만, 막상 이 셋을 연결한 종합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제국의 발달이 부자유 노동을 강요하고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배타적 발전가능성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된 것처럼 막상 18세기 말에는 제국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노예제 이슈와 결합하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 이미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이 대양을 건너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구성했었으며 그것에 대한 강력한 폐지 움직임이 존재했던 것을 이해했을 때, 근대시기 이후 부자유 노동의 인구와 범위가 일관되게 확대되었다는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유 노동인구의 대륙 간 이주 및 디아스포라 집단의 형성은 19세기에 행해진 것 뿐 아니라 18세기에 존재했던 원형들에 주목해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자본』은 식민주의, 디아스포라, 부자유 노동력이라는 주제들 자체가 다양한 형태와 발전 경로를 가진 것임을 일깨워 주며, 이런 면모를 고려한 중

C. L. 브라운의 『도덕자본』 (Moral Capital)을 중심으로
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wilberforce2@gmail.com

주제어(Key Words):

대서양 노예무역(the Atlantic Slave Trade), C. L. 브라운(C. L. Brown), 도덕 자본(Moral Capital), 제국 정책, 부자유 노동력(Forced Labor), 디아스포라(Diaspora)

(투고일: 2016. 10. 23, 심사일: 2016. 11. 05, 게재확정일: 2016. 11. 14)

<국문 초록>

윤영희

이 연구는 부자유 노동력, 디아스포라, 제국정책이라는 근대사의 중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C. L. 브라운(Christopher Leslie Brown)의 『도덕 자본: 영국 노예무역 폐지주의의 기원들』의 논지와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책은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부자유 노동이 확대된 과정 뿐 아니라 그 흐름이 중단되고 폐지되는 과정까지 설명하여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책은 반노예제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도주의 혹은 경제적 동기 중 하나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브라운 테제는 운동가들이 반노예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덕적 신념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임으로서 그들이 박애주의자이었던지, 위선자였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의 틀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지점에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제국정책을 둘러싼 당시 영국과 식민지인들의 치열한 논쟁과 연결되는 고리가 발견될 수 있다. 18세기 말 영 제국의 도덕적 권위의 위기 국면에서, 제국 정책의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에 도덕적 위신을 더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반노예제 수사가 개인 및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과정 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관철 하는데 유용한 담론적 무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Debate on the British Imperial Policy and the Abolition
of the Atlantic Slave Trade, Focusing on C. L Brown's *Moral
Capital*

Yoon, Young Hwi

This study analyzes arguments and implications of *Moral Capital: Foundation of British Abolitionism* by Christopher Leslie Brown(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2006), in order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mportant themes in the modern history such as forced labor, diaspora and the imperial policy. Brown's thesis broadens the scope of research areas, expla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antislavery movement as well as the expansion of forced labor through the Atlantic slave trade. Moreover, his work breaks fresh ground in the debate of abolitionists' motivation. *Moral Capital* emphasizes the transcendence of abolitionist motivation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humanitarianism and material interests.

In this poi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ssue of slavery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justification of the imperial policy could be found. During the critical moment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ritics of the imperial policy as well as proponents of the British constitution found a means to assert their moral superiority in antislavery discourse. This shows political expediency of antislavery arguments; attacks on slavery could serve a range of purposes as a rhetorical weapon to support particular opinions.